

# 마을 만들기와 산지천변(山地川邊) 야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 생태박물관으로서 산지천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정 광 중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목 차

1. 들어가며
2. 건입동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자원
3. 건입동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4. 산지천변 야시장 조성 프로젝트의 구상과 전략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이 글은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다. 최근 건입동은 「박물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남원읍 신흥2리(속칭 동백마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동민들의 선진시민 의식고취와 더불어 마을 내 자원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입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마을을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 본고는 2007년 12월 건입동에 제출한 「건입동 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2007년 12월 13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팀)에서 필자가 담당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을 수 있는 시설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신명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유니크(unique)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건입동의 여러 주체(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및 주민 등)들의 참여에 의한 프로젝트의 구상과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최대 약점은 프로젝트의 구상과 실현에 있어서, 건입동의 상위 행정기관인 제주 시나 제주도의 의도와 행정적인 지원문제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규 및 규제의 검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밝히는 프로젝트가 필자 혼자만의 허황된 생각으로만 그쳐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글의 목적은 일단 건입동과 일도1동 등 다소 한정된 공간 내에서 새로운 발상에 의한 마을 만들기(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계(基劑)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한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디딤돌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놓고, 언젠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련법규 및 규제 등이 제정되거나 혹은 보완되어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면, 이 글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필자는 그러한 발판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 2. 건입동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자원

### 2-1. 건입동의 지역적 특성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를 실행해 가기 위해서는 건입동이 지니는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건입동이 어떠한 자연적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기저에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누적돼 왔으며, 나아가 주민들은 주어진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활용하여 독특한 생활과 문화를 일구어 왔는지

1) 건입동주민자치위원회, 2007, 「건입동 발전과제 발표자료」, 참고로, 이 자료집에서는 각 분과별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들을 구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분과별 사업내용은 ① 자치개발분과 : 제주향(여객선 터미널) 아름다운 미항 만들기, ② 환경산업분과 : 사라봉을 리모델링 하자, ③ 행정서비스분과 : 사라봉개발계획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주변여건을 조성하자, ④ 사회복지분과 : 자연사랑·문화사랑·향토사랑 사라축제 구현, ⑤ 건입동사무소 : 탐동·산지천·사라봉이 있는 시민의 휴식처 건입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건입동이 자리 잡은 지역은 바다를 끼고 배후에 저평한 저지가 전개되는 지형적 조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건입동의 북쪽은 바다(해안)가 접하여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내륙의 동서남쪽 방향으로 는 주거지의 확보와 농사활동에 적합한 평평한 저지가 전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입동 지역에는 산지천이 흘러들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수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산지천 하구에는 강우시의 단순한 하천수 뿐만 아니라 산지천 변으로 흘러드는 산지물, 광대 물, 금산물, 노루물, 지장각물 등 많은 용천수가 위치하고 있어서 식수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건입동에는 동쪽 가까운 곳에 사라봉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건축재료, 땀감, 먹거리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차단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건입동에는 북쪽으로는 바다, 남북방향으로는 강(산지천), 동쪽으로는 오름(사라봉), 남쪽의 배후에는 저평한 대지가 전개되고 있어, 그야말로 집단적인 거주지역을 이루기에는 양호한 지리적 기반과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건입동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다를 배경 삼아 포구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며 마을이 형성된 포구취락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해안을 배경으로 마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반도부와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입동에는 선사시대를 거쳐 역사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연적으로 집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표 1>에서 보는 다양한 유적지(유물)를 대표로 하는 자원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건입동 지역은 일찍부터 집단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선진문화의 시대상이 반영되며 이어져온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궁극적으로 건입동은 반도부와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인적·물적 교류를 배경으로 한 제주도(濟州島)의 중심항구로써, 또한 제주와 반도부에서 집산된 다양한 상품을 발판 삼아 상업활동을 전개하는 경제활동의 장(場)으로써, 나아가 점진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의 중심지구로써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 2-2. 건입동의 지역자원과 그 성격

마을 만들기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는 '사람(인적자원)' 과 '자원(지역자원)' 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지역자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지역자원들 중에서 어떤 것을 마을 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건입동의 자원을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중에서도 건입동을 대표할 만한 자원들의 특징을 정리하여 마을 만들기의 근본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일본인 학자인 와타나베 메이지(渡辺明次) 교수는 그의 저서인 『세계의 마을 살리기·마을 만들기(世界の村おこし・町づくり)』에서 “마을 만들기”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또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형태(見せる形)」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활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2)</sup>. 그리고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만들기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sup>3)</sup>,

첫째는 지금까지 마을 내에 전혀 없던 것(필자 주 : 상품 개발, 지역자원 개발, 공장 유치 등)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마을 내에 숨겨져 있던 것(필자 주 : 지역자원 발굴, 공예품 발굴 등)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셋째는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평소 주민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것을 우선 만들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육성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와타나베 메이지의 마을 만들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쇠퇴하는 마을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마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이 끌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

2) 渡辺明次, 1991, 『世界の村おこし・町づくり』, 講談社現代新書: 東京, 18쪽.

3) 渡辺明次, 1991, 앞 책, 18~19쪽.

자원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고 평가하여 개발할 것인지가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와타나베 메이지가 강조하는 마을 만들기는 일자리 창출과 마을 만들기를 동일선 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와는 공간적 스케일(인구규모에 따른 지역적 범위)이 다르고,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 과제라는 관점에서 다소 차원이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크기 즉 한 개의 마을(里)이나 동(洞)지역과 한 개의 시·군 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에는 일정한 공간적인 범위 내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요소(지역자원, 각종 시설, 인구수, 토지이용 정도 등)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는 하나, 와타나베 메이지가 제시한 마을 만들기에는 지역의 크기에 관계 없이 기저에 흐르는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즉 마을 만들기의 세 가지 방식의 기본 틀 중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간에 최소의 기초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반드시 동반되거나 집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할 때,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의 방향설정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1〉에 제시한 건입동의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은 일부 인접하는 동(洞)지역, 즉 일도1동 및 삼도2동, 화북동 등과 공유하는 자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자원은 시대를 달리하거나 혹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의거하여 그 위치가 이동함으로써 원래의 자리를 벗어난 자원들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자원은 자원으로써 취급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성격을 지닌 까닭에 생략된 것들도 있다.

〈표 1〉과 같은 건입동의 자원들은 인문자원의 경우는 주로 조선시대와 근·현대시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자연자원의 경우는 오름(산)과 물 관련 자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자원 리스트를 살펴볼 때,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활용 가능성), 또는 건입동을 대표할 수 있거나(대표성) 건입동을 연상할 때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거나(상징성), 건입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정체성, identity)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 지위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필요성) 또는 최대한으로 부합되는(부합성) 배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표 1〉 건입동의 지역자원(인문자원·자연자원)

자 원 구 분		자 원 이 품	비 고
인 문 자 원	선사시대 ~고려시대	산지항 출토유물(화폐: 18점, 동경: 2점, 검코: 1점 등 총 21점), 건입동 북사면 동굴유적 존재 가능지	산지항 출토유물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내 소장·전시중
	조선시대	산지포(건들개, 제주항), 만수사지(동자복사), 동자복(복신마복), 제주읍성터(동문지 부근), 공진루(공신정)터, 죽서루터, 연무정터, 폐승정(해산대)터, 연교정터, 영은정터, 좌연각터, 심고당터, 고마(매)장터, 고서홍 공덕비, 삼천서당터, 김만덕 묘터, 객주터, 칠머리당터(현, 사라봉 칠머리당지 포함), 망곡단터, 사라봉수터, 사장(射場)밭	일부 생략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자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생략하였음(예 : 제주읍성터 관련·복수각(구)·천일정 등)
	근·현대	사라봉(산지) 등대, 사라봉 일제전적지터, 모충사(기념탑·기념비 포함), 단추공장터, 정양원(모자원)터, 담배·소금·성냥 배급소 터, 소라통조림 공장터, 5일장터, 남당터, 공회당·야학청터, 사이다(라모네)공장터, 거울공장터, 동양척식회사 제주주정공장터, 포제터, 신사터(공진루터), 불미터, 두부공장터, 제주사범학교·제주교육대학터, 제주시교육청터, 양로원터, 제주 내연발전소터, 당면공장·제빙공장터, 어물시장터, 고등어절임·된장·고철·연탄공장터, 흑산호가공소터, 등피 밤부리 공장터, 어업협동조합터, 제주세관터, 원호처 제주지청터, 앞돈지 종선터, 한국의자관리청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터, 제주지방기상청	이외에도 다수가 존재하며, 일부의 자원은 그 위치가 시대를 달리하며 중복되는 것들이 있음
	기 타	포제단(충혼각), 제터	연대 추정 불가 자원
소 계		58개소	-
자 연 자 원		금산, 사라봉(148.2m), 알봉(96.2m), 산지천, 산지물, 금산물, 광대물, 지장작물, 노루(리)물, 망안이물, 거순샘이(새미), 공덕동산, 지장작동산, 광대코지, 줄락코지, ㄱ으니ㄴ루	용천수 자원 중에는 일부 생략된 것도 있음
소 계		16개소	-
합 계		74개소	-

(자료 : ①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1996, 『건입동지』,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44~150쪽.  
 ②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제주시, 180~194쪽.  
 ③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제주시, 6쪽.)

이러한 관점에서 <표 1>에 제시한 건입동의 자원을 꼼꼼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건입동의 자원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마을 만들기의 배경에는 반드시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뒤따라야 한다는 대전제와, 위에서 지적한 ① 활용 가능성, ② 마을의 대표성, ③ 마을의 상징성, ④ 마을의 정체성,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상 ⑤ 필요성과 ⑥ 부합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연결지어 보면,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에 유효한 자원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건입동의 자원들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추상적인 '터(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형태와 구체성을 띄는 것은 몇 개의 자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 <표 2>는 바로 건입동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6개의 주요 자원들이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지표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지,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것이다. 물론 <표 2>에 제시한 자원들은 건입동에 분포하는 여타의 자원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시적이고 구체성을 띤 자원들이라 지적할 수 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건입동 내에서도 가시적이고 구체성을 띄는 주요 자원들 중에서는 사라봉(12점) - 산지포(제주항)(10점) - 산지천(9점) - 사라봉 등대(5점) 및 동자복(5점) - 제주읍성터(4점) 순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볼 때 마을 만들기에 가장 유력한 자원은 사라봉으로 집약된다. 그만큼 사라봉이 지니는 자연적 가치와 건입동을 생각할 때 상징성, 대표성 및 정체성(이미지 포함)을 고루 갖춘 자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라봉은 본 소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검토할 때,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로서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자원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라봉은 제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도 매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는 자원이라 볼 수 있다.

과거의 건입포, 즉 오늘날의 제주항도 서부두의 일부 구간이 삼도2동과 공간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건입동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항도 건입동의 소중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본 소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는 직접적인 연계성은 다소 미약하고 간접적인 영향권에서 활용도를 고려할 수 있는 자원이다.

〈표 2〉 건입동 주요 자원의 평가

자 원	평가지표	활용 가능성	마을 대표성	마을 상징성	마을 정체성	합 계
① 사라봉		○	○	○	○	12
② 산지포(제주항)		○	○	○	○	10
③ 산지천		○	○	○	○	9
④ 사라봉 등대		○	△	△	△	5
⑤ 동자북		△	△	△	○	5
⑥ 제주읍성터		△	△	△	△	4
평가, ○ : 3점, ○ : 2점, △ : 1점						

(자료 :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리)

산지천은 사라봉과 산지항(제주항)만큼의 대표성이나 상징성은 떨어지지만, 최근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제주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천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하천의 특성상 '선적(線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 기획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도 제대로 합치되는 자원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소고에서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산지천 변을 중심으로 '산지 야시장(夜市場)'이란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지천 변의 야시장 조성은 하천 북동쪽으로 열려 있는 제주항을 배경으로 삼아 근본적으로 하천과 항구(포구)의 만남을 토대로, 새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왕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본적 개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 3. 건입동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앞에서 산지천 야시장 조성 기획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나, 현 단계에서 건입동이 왜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따른 마을 만들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입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래 전에 포구마을에서 성장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건입동과 관련된 지명으로 '건입포(巾入浦, 건들개)'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제주항이 과거의 작은 산지포구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물자와 사람들이 드나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제주시의 한 중심지역으로 터 잡게 된 배경을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건입동에는 인구집중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 지구에 상가(商街)가 조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민들의 생활기반도 비교적 탄탄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건입동민들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1950~60년대 초까지도 주로 어업과 농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1960년대 중반 경부터는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도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1955년 제주시가 읍(邑)에서 시(市)로 승격된 이후 더욱 더 그 강도가 강해졌다.

건입동의 인구 추이는 현재의 제주시가 시로 승격하기 이전인 1953년에 5,998명(제주읍 전체인구의 9.8%)이었으나, 1963년 8,623명, 1973년 1,720명, 1983년 14,184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1985년 14,657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다소의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결국 1990년 13,946명, 2000년 12,247명, 2007년 10월 말 현재 10,852명으로 계속해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국면에 있다. 만약 이대로 인구감소가 진전된다면, 몇 년 안으로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점이 건입동 마을 만들기가 필요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건입동의 상가는 손님부족으로 더욱 황폐해지고 그것이 견실하지 못한 상황은 건입동에 거주하는 인구마저도 결국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입동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은 건입동 내에 위치하는 상가지구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건입동의 주요 상가지구 혹은 상가밀집지구는 ① 산지천 하구 용진교에서 탐동부근의 임항로와 그 주변지구(서부두길 포함), ② 동문로(특히 사라봉 5거리~성동1로 시작 부근 구간), ③ 해짓골3로와 그 주변, ④ 사라봉 5거리에서 동부두로 이어지는 임항로 주변, ⑤ 산지로 등이다. 이들 상가지구 중에서 몇 가지 종류로 특화된 지구는 ①번 임항로와 그 주변지구로서 특히 서부두길의 횡집상가와 그 주변지구의 다양한 어류를 소재로 한 식당 또는 수산물 판매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상가지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점포들이 혼재돼 있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평

소 사람들이 그나마 꾸준히 방문하는 곳은 ①번 상가지구로서 현재로서는 건입동의 명물거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그 외의 상가지구는 그다지 특색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건입동에 새로운 형태의 명물거리를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역시 산지천 야시장 조성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①번 상가지구는 먹거리 상가로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방문객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및 살거리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방문객들이 야간에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즐기며 물건을 살 수 있는 지구가 조성된다면, 건입동은 물론이고 주변지구로도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건입동 마을 만들기 차원의 산지천 야시장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 4. 산지천변 야시장 조성 프로젝트의 구상과 전략

### 4-1. 산지 야시장 조성의 기본적 시각

산지천변을 활용한 가칭 산지 야시장 조성의 기본적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제주시가 문화도시(文化都市), 안전도시(安全都市), 생태도시(生態都市)의 축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시각과 이념을 바탕으로, 가칭 산지 야시장을 제주시의 새로운 명물거리로 활성화해 나간다.
- ② 새로 조성되는 산지 야시장은 일도1동의 동문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및 칠성로 상가, 탐동상가 지구 등과 연계시켜 구제주의 상권(商圈)을 회복하는 원동력으로 삼는다.
- ③ 산지천을 지역자원의 개념을 토대로 접근·활용함으로써 지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제주시의 다른 동(洞)지역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살기 좋은 지역(마을) 만들기 혹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주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

안 연구』(2007)에 따르면, 산지천과 동문시장은 「동문권」(제3권역)으로 묶어 상권연계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산지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는 했지만, 수변공간(水邊空間)으로서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문권」을 ‘먹거리 체험관광’ 및 ‘문화이벤트 존(zone)’으로 특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산지천 변을 계절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해 야시장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고 동시에 야간에 침체돼 있는 동문시장이나 중앙로, 동문로 및 칠성로, 탐동상가 지구의 먹거리 체험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

- ⑤ 위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관련 필요성」의 결과는 ‘야시장 및 야간조명시설을 확충해야 한다’와 ‘산지천 물을 더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가 1위와 2위로 높은 값을 보였다<sup>5)</sup>. 따라서 주민들도 산지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야간 방문객들에 대한 쇼핑 혹은 야간관광의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앞으로 상위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를 비롯한 진입동·일도 1동, 관련지역의 동민들 사이에서 신중한 논의와 협조적인 분위기가 모색된다면, 산지천 야시장이 구도심에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수 있고, 또한 생활경제 기반이 미약한 가정(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가정, 다가족·다세대 가정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4-2. 산지 야시장의 조성 전략

### (1) 산지 야시장 조성의 구체적 전략

산지 야시장 조성의 구체적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산지천의 하류구간인 복원 구간에 조성되는 야시장을 일단 가상적으로 “산지 야시장(山地 夜市場)”이라 명명한다. 그리고 산지 야시장의 카피(copy) 문구는 ‘생태박물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산지 야시장’,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산지 야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지 야시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7, 『제주시 문화관광과 상권 연계방안 연구』(연구용역 보고서), 264~269쪽.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7, 앞 책, 175~176쪽.

장'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산지 야시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례(의회 승인이 필요)와 규정을 반드시 제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기간까지는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② 기본적으로 산지 야시장은 <그림 1>과 같이, 2002년 6월에 새롭게 복원된 산지천 변 양 사이드(산지로와 중인문로)의 인도(또는 일부의 차도: 양쪽 구간에 따라 혹은 계절별 시간대에 따라 일부의 차도도 활용 가능)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즉, 복개된 산지천의 길이는 한쪽 구간이 474m(왕복 948m)인데 북동쪽의 용진교(제주항 방향)에서 남서쪽의 동문교(동문시장 방향)까지의 구간이다. 이 왕복 구간을 잘 활용하여 계절에 따른 야시장을 조성한다. 단 산지로 쪽의 인도는 상당히 넓고 중인문로의 인도는 부분적으로 꽃길(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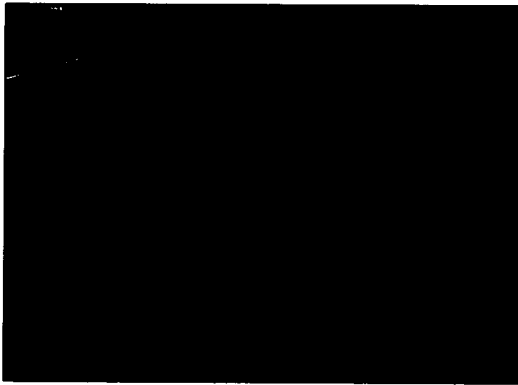
<그림 1> 산지천과 그 주변 지구(1 : 3,000)

(자료 : 제주시, 2004, 『제주시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제주시, 39쪽)

조성과 함께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폭이 좁고 곡선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식 판매대는 두 도로의 특성을 살려 배열 공간을 색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 ③ 산지 야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이동식 판매대(소형 리어커식)'를 원칙으로 삼아 설치하며, '이동식 판매대'는 제주시나 관련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걸쳐 허락 받은 개인 소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동식 판매대'는 행정당국인 제주시 관련부서(건입동 포함)가 전체적인 외부형태(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이한 형태로 제작), 가로와 세로의 크기, 높이, 바퀴의 크기(지름), 손잡이, 접이식 의자판매대 부착용), 색상(판매대) 등을 결정하고, 행정당국이 직접 일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행정당국에서는 판매대의 외부형태, 크기, 높이, 색상, 바퀴의 크기(지름), 손잡이, 색상 등을 사전에 단계별로 의견수렴과 심의과정을 걸치면서 생태하천인 산지천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판매대와 판매대를 설치하는 도로(인도 또는 일부의 차도) 폭과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진 1), (사진 2).
- ④ 산지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동별 범위)은 우선적으로 일도1동과 건입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외에 타동(他洞)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행정당국에서 심사위원회를 조직·결정한다. 그리고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선정은 조례제정 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앞에서 예시한 경제적인 생활기반이 미약한 가정(또는 세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일도1동이나 건입동 등 일부 관련 행정기관(부서)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해 자치 행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 ⑤ 행정당국은 산지천 변 용진교~동문교 사이의 양 구간(474m)에 일정한 크기와 높이를 가진 판매대의 설치대수를 정하되, 방문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중간 중간에 기존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sup>6)</sup>와 야시장 조

6)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란 '거리의 가구'를 의미하며 보통은 도시거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벤치와 스톨(stool)을 비롯하여 공원과 페르골라(pergola), 과속방지턱(bump), 도로울타리(guard fence), 차량차단물, 쓰레기통, 재떨이 등을 가리키나, 이외에도 도로의 일부를 접하는 맨홀, 전봇대, 배전판, 변압기 등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이들 모두가 도시거리를 디자인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佐藤 優, 著(김명환 역), 2005, 『커뮤니티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로코스(주), 89쪽.)



(사진 1) 산지로 변 인도



(사진 2) 증인문로 변 인도

성과 관련된 스트리트 퍼니처의 설치 등을 고려한 공간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구체적으로는 ‘(3)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전략 참고).

- ⑥ 산지 야시장 조성은 건입동 마을 만들기, 구도심 상권 활성화 나아가 제주시 야간 관광지의 활성화 차원을 고려한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야시장 조성으로 인하여 산지천이 오염되거나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산지천의 오염방지 및 관리·보전 방안」을 새롭게 마련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산지 야시장을 알릴 수 있는 「명물거리로서의 홍보방안」도 계획·마련해야 한다.
- ⑦ 산지 야시장은 계절별로 일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야시장의 개장 시간을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새벽시간대부터는 다시 산지천 변이 제주시민과 관광객(방문객)들의 조깅코스 또는 산책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⑧ 산지 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몇 종 이내로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제주도의 토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산지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먹거리는 동문시장, 칠성로 상가, 중앙 지하상가 등 기존 주변상가에서 판매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산지 야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으며, 각 상품별 판매 가격도 일정한 금액을 책정(정찰제)함으로써 가격차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나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7)</sup>. 나아가, 주류와 음

7)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박경득 선생의 제안에 의함.

식물(먹거리) 판매의 허용은 그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예를 들어 점포수로 한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내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산지 야시장이 주류와 음식물 판매 전용의 포장마차 지구로 전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 (2) 인근 상가와와의 연계 전략

인근 상가와와의 연계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산지천 주변에 위치하는 상가밀집지구로는 건입동 내 임항로와 삼도2동 탑동 주변 상가를 비롯하여 일도1동의 동문시장과 칠성로 상가, 중앙로 지하상가 등이 있다. 산지 야시장이 조성된다면, 이들 상가지구와도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산지천 야시장 외의 다른 상가지구는 주로 주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야간 시간대에 따른 특성화가 명료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산지 야시장은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에 의한 제도권 내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고 보호되는 '일시적인 상점지구'이고, 그 외의 상가지구는 개개인의 책임 하에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가별 색깔 있는 특성화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가 나름의 특성화 전략은 지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품(물)의 차별화와 손님 층의 차별화를 철저한 전략으로 삼아 실천해 가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산지 야시장과 기존 상가가 경영하는 시간대가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다소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오히려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지 야시장과 기존의 상가지구를 하나로 묶어 큰 울타리라 가정하고, 그 속에서 많은 관광객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쇼핑을 하고 차와 식사를 하며, 제주항의 맛있는 야경과 함께 제주시의 소중한 역사·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방문객)과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상가지구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인근 상가인 동

문시장을 비롯한 중앙 지하상가, 칠성로 상가, 탑동상가 등과 연계하여 개점과 폐점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sup>8)</sup>.

- ③ 구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점과 상점, 상가와 상가지구를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 전용 상품권 구입에 따른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 또 특정물품을 특정상가에 가서 구입할 경우에 평소보다 훨씬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 상품권 발행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특정 축제일에 발행하는 특별할인 상품권도 발행하여 평소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물건(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구입한 상품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애프터서비스(AS)를 통하여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구도심에 자리 잡은 여러 상가지구의 대표들이 정례적인 모임을 만든 후, 상가 활성화와 함께 제주시민과 관광객(방문객)들 모두를 유인하는 방법 찾기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상가대표들의 정례모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가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모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상가지구에 사람들의 흡인력(吸引力)을 한층 높이고 상가 활성화를 이루어, 과거 구도심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크게 일조(一助)하는 모임적 성격을 띄어야 할 것이다.

### (3)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조성 전략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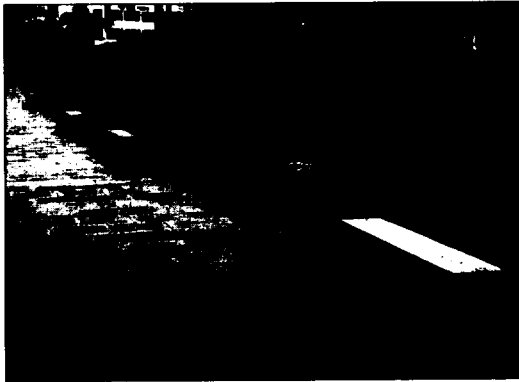
- ① 산지 야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구간은 편도 구간이 474m로, 왕복 948m에 이르는 거리이다. 이 거리는 짧다면 아주 짧은 거리이나 신지천을 장식하여 활용하는 공간적 개념요소로서는 손색없는 구간이다. 현재 산지천 변 인도와 하천 안쪽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 설치된 스트리트 퍼니처는 산지천을 복원하면서 설치한 음악분수(대), 아치형 다리, 수중보(水中堡), 미니 선착장, 정낭시설, 조천석(朝天石), 용천수 목욕탕(놀이터), 꽃밭, 체육시설 및 발 마사지 시설 등으로, 예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설치되기는 하였다. 또한 중간 중간에 목재 벤치, 돌 벤치, 하천을 비추는 전용 가로등도 설치되었다(사진 3), (사진 4), (사

8)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고정숙 선생의 제안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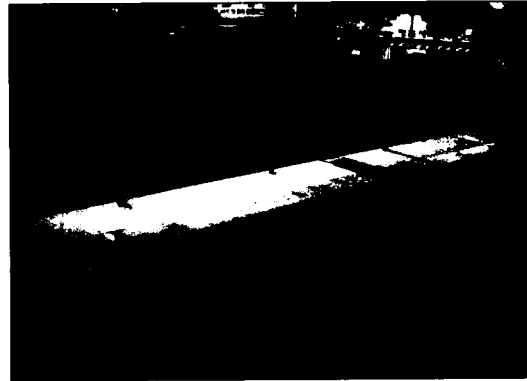


진 5), (사진 6). 이들 모두는 산지천 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스트리트 퍼니처이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2002년 6월 이전에 주상복합 건물로 복개돼 있던 산지천이 다분히 인공적이지만 생태하천으로 탄생된 것 자체가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지천을 따라 야시장이 조성되려면,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한층 더 필요하다. 현재의 목재 벤치만으로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운 디자인과 형태를 띤 벤치나 스툴(stool)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노천 영화상영(구체적으로는 '4 문화이벤트 활성화 전략' 참조)을 행하거나 특별행사 기간(야간 축제)에는 더 많은 벤치가 필요한데, 그 때마다 이벤트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사용할 것인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진 3) 화단(꽃밭)과 벤치



(사진 4) 수중보(水中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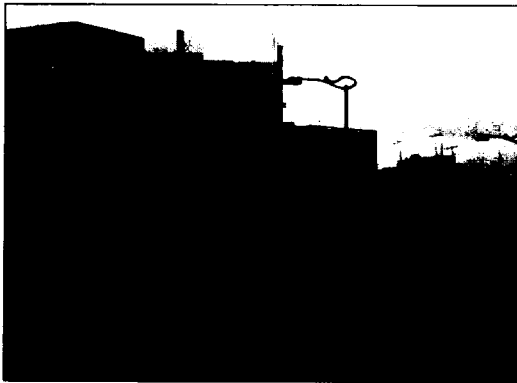


(사진 5) 조천석(朝天石)



(사진 6) 여러 가지 운동시설

- ③ 산지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스톨 외에도 산지 야시장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산지천 주변을 외부적 시각에서 장식하며 야시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이나 특수한 시설<sup>9)</sup> 등의 도입도 강구해 볼만하다.
- ④ 현재 산지천 양안(兩岸)을 비추는 가로등과 도로 쪽을 비추는 가로등도 산지 야시장 거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스트리트 퍼니처이기 때문에 높이, 형태, 색상을 좀 더 색다르게 구안하여 운치 있고 특별하게 꾸미는 것이 필요하다(사진 7).
- ⑤ 현재 산지천 구간에 설치된 인도의 보도블록도 특색 있는 색상과 형태로 새롭게 도입하여 설치함으로써, 산지 야시장을 건입동과 일도1동 내의 의미 있는 특수한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제활동의 공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⑥ 이 외에도 산지 야시장을 장식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의 설치를 제안하며, 또 야간에 특별한 조명전구를 활용하여 주변을 장식하거나 특별한 형상을 나타내는 전구도안(電球圖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전구도안을 3개의 다리 난간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도입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사진 8).



(사진 7) 산지천 측과 도로 측 가로등



(사진 8) 북성교(다리는 다양한 장식이 가능)

#### (4) 문화 이벤트 활성화 전략

9) 산지천과 조화롭게 엮어낼 수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대형 물방아나 과거 산지포에 많이 정박하던 중선(中船) 모형을 예술작품이나 혹은 실제의 크기로 복원하여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설치된 물레방아나 중선은 어떠한 형태로든,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이벤트 활성화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산지 야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여 관광객(방문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판매활동의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문화 이벤트의 활성화 전략은 두 가지 관점, 즉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야시장으로 많이 몰리게 하는 관점, 야시장 전체의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② 먼저 한 가지는 여름과 초가을(7~10월) 기간에 걸쳐 거리 노천극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지 야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이점은 최근에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관련기기(야외 전용 영사기, 멀티 프로젝터 등)의 개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스크린(screen)은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상공에 애드벌룬을 양 사이드에서 띄워 올린 후, 화면 높이를 지상에서 고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영사기는 3개의 다리 중 동문교나 용진교(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3개의 다리(광제교, 복성교 및 산지교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에 설치함으로써, 한쪽으로 관광객(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영화상영의 횟수와 시기(계절), 시간대 등은 행정당국(관련 부서)이나 가칭 '산지 야시장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③ 계절별 문화 이벤트로써, 고등학교 관악대를 활용하여 1일 거리축제를 시도할 수 있다. 1일 거리축제는 제주항 동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시작하여 임항로와 산지천을 따라 동문로터리까지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1일 거리축제는 늦봄(4월 말)에서부터 가을(10월 말) 사이의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행할 수 있겠지만, 산지 야시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관악대는 제주 시내에 소재하는 오현고, 제주일고, 제주중앙고, 제주관산고, 제주여상고 등의 관악대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1일 거리축제에서 고등학교 관악대의 활용은, 예를 들어 오전 1회, 오후 1~2회 정도의 횟수로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 마지막 프로그램과 관련한 관악대의 활용은 산지 야시장 오픈 시간대에 맞추어 활용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 외의 1일 거리축제 내용은 행정당국, 산지 야시장 활성화 위원회(가칭) 및 해당고교 등과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 ④ 산지 야시장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건입동 내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연계한 탐방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건입동내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연결하여 “탐방의 거리”를 조성한 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며 탐방활동을 통해서 산지 야시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 특히 산지 야시장의 근본적 배경이 되는 산지천은 조선시대 때 ‘산저내(山底川)’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소(名所)이기 때문에, 탐방학습의 코스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산지천은 제주도민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무지개다리(虹橋)와도 같은 의미체(意味體)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천을 포함하여 건입동 내에 분포하는 70여 개의 역사·문화유적(표 1 참조)을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코스화해서 탐방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건입동의 이미지와, 앞으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게 될 산지 야시장의 콘셉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건입동에서는 박물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표 1>의 여러 자원 중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표석 세우기(약 40~50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표석이 세워진다면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탐방 거리 코스화는 한층 더 의미 있고 구체화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 (5) 교통 흐름 전략

교통 흐름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산지 야시장 주변의 도로상황을 보면, 동서방향으로는 동문로와 임항로가 연결돼 있고, 남북방향으로는 산지천을 따라 산지로(산지천 동쪽)와 중인문로(산지천 서쪽)가 동문로와 임항로로 연결돼 있다. 동문로와 임항로 및 산지로는 각각 편도 2차선을 보이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교통 흐름에 그리 큰 지장은 없다. 중인문로는 편도 1차선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며 주변지역을 왕래하는데 보조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지천 변에 야시장을 조성하면, 교통 흐름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통 흐름 전략에서 중요한 사안은 방문객이 많아질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과 통행차량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동문로가 아침저녁으로 다소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이지만, 나머지 다른 도로는 큰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의 교통량은 아니다. 동문로의 경우 퇴근 시간 이후로는 그다지 큰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기존의 산지로와 중인문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9), (사진10), (사진 11).

- ② 특히 산지로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을 때는 산지천 쪽의 한쪽 차선을 인도와 같이 통행로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특히 계절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인문로와 산지로를 임의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방통행 화하여 도로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특히 동문로에서 임항로로 진입하여 탑동 방향으로 지나가거나 탑동근처의 임항로에서 동초등학교 방향의 동문로 혹은 신산로와 성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최근에 새로 개설된 성동1로(건입동사무소 및 노동의원 부근 도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차량 통행자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 ③ 1일 축제나 특별기획에 따른 거리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근 지구환경축제(2006년 6월 3일[토]) 시에 행하던 형태와 같이, 일시적으로 산지로를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관악대를 활용한 제주항 동부두에서 산지로까지의 거리행진을 펼치는 경우에도, 행사를 진행하는 구간만을 일시적으로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조정하여 차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사진 12). 물론, 이 경우에 차량통행의 금지는 하루 중 시간대를 설정하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축제시간(또는 기간) 전체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여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④ 산지천 변을 중심으로 한 교통 흐름 전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차문제라 할 수 있다. 산지 야시장을 찾거나 야시장과 연계되는 다양한 축제가 전개될 때는 주차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산지천 변에서 가까운 곳에는 한 번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는 산지천 주변의 탑동 주차장, 제주북교(학교 측과 논의가 필요) 운동장, 동문시장 근처 시영주차장, 산지천에서 사라봉으로 이어지는 임항로의 일부 차선을 임의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잘못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주택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에 산지 야시장 개장시간을 사전에 고려하여 철두철미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산지 야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산지 야시장 부근에 전용 주차장인 주차타워 건립 등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산지천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⑤ 야간에 산지 야시장으로 접근하려면, 대중교통의 편리도 제공돼야만 한다. 따라서 일정시간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일반버스의 연장운행도 반드시 고려돼야만 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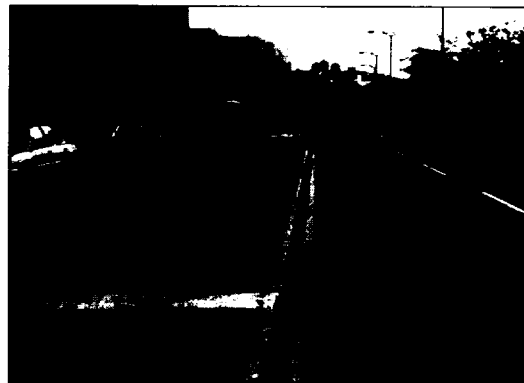
### (6) 인근 경관 및 문화유산 활용 전략

인근 경관 및 문화유산 활용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건입동 내에도 역사·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지만,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 용담1동, 이도1동 등을 잇는 지역 내에는 선사유적에서부터 탐라국 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유적지가 상당히 많다. 이들을 연결한 지역은 탐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정치·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내에 산재하는 유적지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야외 박물관이자 생태박물관의 콘셉트를 지닌 산지천과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제주시 내의 경관과 문화유적을 적극 활용하면서 산지 야시장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진 9) 입향로



(사진 10) 산지로

10)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강필규 선생의 제안에 의함.



(사진 11) 증인문로



(사진 12) 2006년 지구환경축제 시 도로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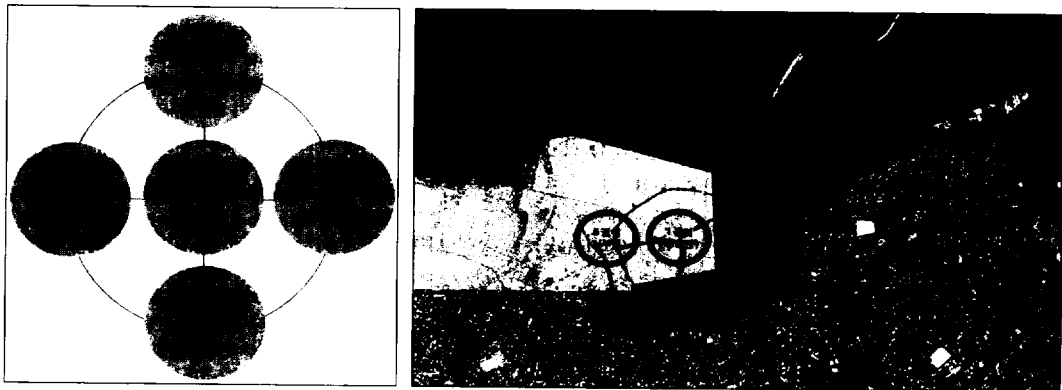
- ② 산지 야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경관과 문화유적의 활용 전략은 우선적으로 사라봉·제주항·국립제주박물관, 오현단과 제주읍성, 용두암과 용연 및 용연포구(용수개맛), 삼성혈·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문예회관·제주관광민속타운, 제주향교·관덕정·제주목관아지, 동문시장·서문시장·중양로 지하상가·칠성로 상가·서부두 횃집상가·탐동문화공간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4~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저마다 특별한 성격을 지닌 개성지구(個性地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③ 제주시 구도심에 분포하는 중요한 경관이나 문화유적은 제주시(2007)의 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구도심권 권역별 전략에서 설정한 5개 권역의 구분도 구체적인 실례가 될 수 있다(그림 2). 즉, 제1권역(중양권: 제주목관아지·칠성로·지하상가), 제2권역(남문권: 오현단·남문로), 제3권역(동문권: 산지천·동문시장), 제4권역(서부: 서문시장·사대부고·해안도로), 제5권역(해양권: 탐동·제주항·사라봉)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sup>11)</sup>, 이 구분은 바다(해양)와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방향권(동선)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권역을 토대로 하여, 앞서 제시한 자원들 중 제외된 것을 포함시키면, 권역의 범위는 다소 넓어지지만 관광객(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경관이나 문화유적의 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권역 내에 분포하는 경관이나 문화유적들(인문자원 및 자연자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 권역별 개성화(個性化)를 추구할 것인지 강구해야만 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7, 앞 책, 264~269쪽.

(7) 건입동 내로 유동인구의 유입전략

건입동 내로 유동인구의 유입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앞에서 제시한 인근 경관과 문화유적 활용 전략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지만, 산지 야시장 조성 후에 관광객(방문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산지 야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명물거리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동인구의 유입전략에서는 일단 건입동 내로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건입동 내로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건입동 내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대상(경관 또는 문화유적, 축제, 거리 퍼포먼스 등)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기구(機構)가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모든 조건을 단 한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건입동의 현 상황을 직시하여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광객(방문객)들로부터 건입동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림 2〉 제주시 구도심 권역 확정 개념도 및 권역 분포도

(자료 : 제주시, 2007, 『제주시 문화관광과 상권 연계방안 연구』(연구용역 보고서), 266쪽.)

- ② 분석시점에서 볼 때, 건입동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유동인구 유입전략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㉞ 먼저 한 가지는, 건입동 내의 영업점포(일반식당, 분식집, 찌집·회센터, 카페, 레스토랑, 선물집[예: 간이역, 토크쇼, 스페셜, 동아리, 까투리 등], 단란



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일반상점 등)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영업점포는 특수한 항목을 바탕으로 엮어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아래 제시한 예는 기본적인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건입동내의 많은 영업점포를 대상으로 관련부서(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 ㉔ 특이한 음식(메뉴)을 파는 식당, 카페
- ㉕ 독특한 음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식당·카페
- ㉖ 물건 값이 아주 저렴한 영업점포(예: 워든지 1,000원 마트)
- ㉗ 3대가 같이 영업하는 영업점포(식당, 상점, 분식집, 횡집·회센터, 선술집 등)
- ㉘ 조사시점에서 3대 이상을 거쳐 영업하는 영업점포(식당, 상점, 횡집 등 등)
- ㉙ 실내외 장식이 매우 독특하거나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영업점포
- \* 기타 다른 항목으로 설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㉚ 두 번째로는, 주택(집)과 건물을 핵심단어(key word)로 하여 의미 있고 흥미로운 항목을 설정·리스트(list)화 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 ㉓ 건축형태가 독특하거나 매우 특이한 형태로 설계된 집 또는 건물
- ㉔ 건축한 지 100년(또는 50년) 이상 되며, 현재도 살림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집 또는 건물
- ㉕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거나 특별한 집안 내력(역사)을 가지고 있는 집 또는 건물
- ㉖ 예쁜 텃밭(또는 우영)이나 마당이 딸려있는 주택(집)
- ㉗ 아주 오래된 고목이나 아주 희귀한 나무(또는 꽃)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택)
- ㉘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옥상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 또는 건물
- \* 기타 다른 항목으로 설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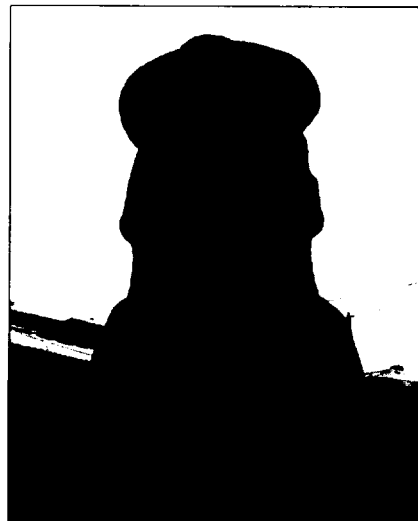
이상 크게 두 가지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리스트화 한 후, 건입동이 나타난 도로지도(道路地圖)에 대략적인 그 위치를 표시하여 '건입동 명물지도'(가칭)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건입동의 특이한 점포(가게), 특별한 집과 건물 등을 소개하는 명물지도가 관광객(방문객)에게 배포된다면, 건입동으로 이동해오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입동 명물지도'의 작성과

배포하는 방법 외에도 도로변이나 주택가 변에 작은 '표지판' (약도 형식으로 내용 표기)을 세워, 특이한 점포(가게)나 특별한 집과 건물 등을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② 건입동에는 제주도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1호인 복신미륵(東資福)이 있다(사진 13), (사진 14). 그리고 조선시대 여성 거상(巨商)인 김만덕의 상업활동 근거지였던 객주터(客主址)도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을 활용한 건입동의 홍보와 유동인구를 유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형의 동자복을 모델로 하여 약 20~30m 정도의 높이(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게도 고려해 볼만하다)로 크게 확대·제작하여, 바다 쪽의 항구와 육지 쪽의 시내를 잘 전망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모형 동자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내부나 외부로 꼭대기까지 접근하여 주위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시설을 갖춘과 동시에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동자복 상은 건입동민들에게는 과거에 많은 재화와 복을 안겨다 주는 해신적(海神的)인 성격을 띠면서도 새로운 문화시대의 건입동의 또 다른 상징물 혹은 인문자원으로서, 또 관광객(방문객)들에게는 한라산과 제주 시가지와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입동 복신미륵의 중요성과



(사진 13) 복신미륵



(사진 14) 복신미륵 상반신 확대 모습

가치에 대해서는 최근 지역 언론인에 의해 새롭게 조명된 바 있다<sup>12)</sup>. 김만덕 객주터는 일단 객주집 관련건물의 복원을 전제한다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만덕 객주터의 활용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구안하여 실행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나 방문장소로서도 크게 흡인력(吸引力)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3. 산지 야시장 조성에 따른 제반문제 및 대응전략

산지 야시장 조성에 따른 제반문제 및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산지 야시장의 조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지천 복원구간(474m)이 행정구역 상 일도1동과 건입동 등 2개의 행정동에 걸쳐져 있는데다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상위 행정기관인 제주시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결단과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측에서는 확실한 실행의지를 바탕으로 관련제도와 규정 등을 제정하여 의회승인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며, 또 제주시와 건입동 및 일도1동의 입장에서는 해당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관련 위원회) 구성은 물론, 실질적인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단계와 절차를 논의하고 실천단계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산지 야시장의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업무는 여러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되었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든 간에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과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제주시(2007년)의 용역 보고서에서는, 산지천이 속한 제3권역(동문권)의 산지천 활성화 사업내용을 「산지천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구성」 단계와 「산지천변 경계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단계로 구분하여, 전자에서는 ① 산지천 하상 보행로 조성, ② 천변 여유공간 확보 및 관광노점거리 조성, ③ 하상 수중조명 설치, ④ 가로등 조명의 보완 확충을 단·중기 사업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① 외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② 산지천 수중레이저 분수쇼 추진, ③ 산지천 문화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노래가 있는 산지천, 흘러간

12) 강문규, 2007, “복선미륵과 자유의 여신상”(한라일보, 동년 11월 27일[화] 강문규 칼럼 기사).

먹거리 체험, 산짓물 축제(용천수 축제), 예술난장, 야간조명 설치미술전 상설 개최, 징검다리 축제(어린이 배 띄우기 축제))을 중기 사업으로 주문하고 있다<sup>13)</sup>. 이들 사업은 제주도 구도심 전체의 상권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찾기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권역별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소규모의 공간적 범위만을 전제하여 제안하는 산지 야시장 조성 프로젝트와는 여러 차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도 산지 야시장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야시장을 조성하는 단계나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산지 야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연계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산지 야시장의 조성사업을 한층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은 위에 제시한 모든 사업들이 재원확보에 따른 지역(구) 개발의 효용성을 전제할 때, 단 한 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집중과 선택에 따른 단계별 시기설정과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③ 산지 야시장을 조성하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행정적인 현안처리나 재원확보 또는 제도적 장치마련 업무 외에는 건입동과 일도1동 동민들이 고유한 업무를 맡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실행단계에서 상위 행정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을 정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동민들이 협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며 자치적 또는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박물관으로서 산지천을 모티브로 한 마을 만들기 혹은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어디까지나 관(官)은 행·재정적 지원중심, 그리고 동민은 자치(율)적 운영중심 체제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건입동과 일도1동 동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를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한치의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실천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7, 앞 책, 316~322쪽.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입동과 일도1동 동민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어떤 형태로 분담하고, 또한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자체운영 위원회(경우에 따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음)를 조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건입동과 일도1동 혹은 동별로 조직된 '운영조직위원회'와 상위 행정기관인 재주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주기적인 결과보고와 함께 필요사항은 언제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상위 행정기관이 결정한 '이동식 판매대'는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매대수를 정하고, 그 이상의 판매대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함은 물론 판매대를 설치한 영업자(개인)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이동식 판매대'를 통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달 또는 1년간의 사용료를 형편성에 맞게 최대한 저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 영업을 허락한 사람들에게도 일정기간(가령 2~3년) 동안만을 영업하도록 하며, 다시 영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재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단계에서 결정한 이동식 판매대수가 다시 필요에 의해 증설하거나 감소시켜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정해진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재차 엄격한 심사과정을 걸친 후에 승인함으로써,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 ⑤ 산지 야시장이 조성되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영업권을 따내기 위한 조직폭력배들의 배후조정, 이미 영업권을 획득한 영업자에게의 협박(조직폭력배나 비허가권자들에 의한), 영업권의 음성적 거래 등 실로 다양한 상황들이 난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산지 야시장이 조성된 후에도, 영업 자체를 방해받거나 또는 영업을 둘러싼 이권 다툼, 지나친 호객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감시·감독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동안에는 노숙자(homeless)들이 영업장소를 독차지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혹은 일부 사람들에 의한 말싸움이나 난장판이 벌어져 방문객(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치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간이 파출소의 운영이나 영업 시간대에 따른 순찰대 활동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sup>14)</sup>. 궁극적으로 산지 야시장 조성이 새로운 지역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잡혀있어야 할 것이다.

- ⑥ 산지 야시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판매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개점시간과 폐점시간에 따른 판매대의 이동과 보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개점과 폐점시간대에는 이동식 판매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교통방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폐점시간 이후에 이동식 판매대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당연히 확보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개점과 폐점 시에는 질서정연하게 판매대의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시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
- ⑦ 현시점에서 볼 때, 산지천은 건입동과 일도1동 동민 뿐만 아니라 제주시민의 소중한 야외공원이자 구도심의 중요한 지역자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지천 자체는 지붕 없는 생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산지 야시장 조성은 건입동과 일도1동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구도심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되는 사업인 만큼, 야시장 조성으로 인해 생태하천이 쓰레기하천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산지천이 야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오염하천의 누명을 쓰게 된다면, 제주시민 모두에게 엄청난 정서적·생활적 고통을 안기게 됨은 물론이고,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지역활성화 논의도 무의미해진다. 결국 산지 야시장 조성은 산지천이라는 생태박물관을 한층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역자원으로 승화시키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건입동과 일도1동의 책임으로만 미뤄져서는 곤란하다. 제주시민들 모두가 산지천이라는 생태박물관을 지켜가고자 하는 시대적 사도가 무엇보다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4-4. 건입동의 인적자원 지원 전략

건입동의 인적자원 지원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14)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용진 선생의 제안에 의함.

15)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최이순 및 강필규 선생의 제안에 의함.

- ①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인적자원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앞에서 지적했다. 그만큼 특정지역의 역량을 키우며 마을 만들거나 지역활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역량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리더(leader)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거나 지역활성화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은 고학력 소지자나 특별한 기술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결정된 사안은 끝까지 밀어붙일 줄 아는 성격의 소유자를 말한다. 여기에다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을 리더를 믿으며 잘 따라주는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다.
- ② 마을주민(동민)들 중에서도 가령 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작목반 회원 등 마을 내 자치조직의 회원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마을 이장을 비롯하여 여러 자치조직의 회장이나 반장 등은 마을(동)의 리더가 되거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에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마을 만들기에 성공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들 마을의 경우도 마을 만들기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단합된 역량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16)</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입동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은 건입동 마을동민 전체와 동민들을 잘 설득하고 확실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건입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마을회, 향토문화보존회, 바르게 살기운동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등의 자치조직<sup>17)</sup>은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가는데 중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회 회원들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 ③ 그러나 건입동이 산지 야시장이 조성된 이후에 일도1동과 분담된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실행해가기 위해서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조직체계의 정비와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 야시장을 주

16) 정광중, 2007, "마을 만들기에의 도전"(제주일보, 동년 11월 12일[월] 제주시론 기사).

17) 健入洞마을會, 2001, 『健入洞誌』, 健入洞마을會, 358~364쪽.

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조직은 현재 건입동의 자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토대로 새롭게 조직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하고 동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조직체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리더는 건입동 동민들의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건입동에 조성되는 산지 야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아가 건입동민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화합을 토대로 마을발전과 지역(건입동과 제주시)의 일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리더십(leadership)을 가진 사람을 새로운 리더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 5. 나오며

지금까지 생태하천 또는 생태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산지천 변을 활용하여 산지 야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건입동의 입장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실현과 일도1동이나 구도심의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서론 부분에서 밝혔듯이, 본고가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는 그다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되고 분석한 글이어서, 결국 필자의 일방적인 제안과 대응전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점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이 논고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관점의 분석결과가 추가되어, 실제로 산지 야시장 조성이 실현될 수 있다면, 필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기서는 산지 야시장 조성에 따른 건입동 마을 만들기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밝혀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2007년 4월부터 건입동은 「박물관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며, 도내외적으로 '얼굴' 알리기와 정체성 살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건입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박물관이란 개념이 제대로 어울리는 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유적과 문화유적 등이 산재해 있거나 또는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입동에서 강조하는 박물관은 야외 박물관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야외 박물관의 전시소재 내지는 방문객들의 학습장소(대상)는 기본적으로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문제는 이들을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더욱



더 돋보이게 하고, 건입동을 알리는 소재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과제는 행정기관인 건입동과 지역의 주인인 동민들이 합심하여 얹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듯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만 한다.

둘째로, 산지 야시장 조성은 결과적으로 건입동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실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 야시장은 건입동의 새로운 얼굴이자 박물관 마을인 건입동의 상징적인 명물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입동이 일도1동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도록 동민들의 역량도 키워나가야만 한다. 필자는 산지 야시장 조성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안에만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태국의 방콕이나 타이완(臺灣)의 타이베이, 서울(남대문 시장) 등과 같이, 한 국가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 야시장이 대단한 성황을 이루며 수많은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물 야시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명물 야시장으로서의 명성을 날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랐다. 이제, 산지 야시장도 조속히 조성되어 제주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음으로써, 야간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건입동의 마을 만들기의 당당한 자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산지천은 한때 구도심의 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제주시의 경제를 상징하는 존재로 큰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원래의 하천 기능이 강조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주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더욱이 산지천은 생태학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생태하천으로서 혹은 생태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안고 제주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지천에 새로운 이름표를 하나 더 달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알리기의 상징물로 삼자는 것이 산지 야시장 조성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프로젝트는 건입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도1동 나아가 제주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지천 변을 활용한 산지 야시장 조성 프로젝트는, 작게는 건입동과 건입동민, 넓게는 제주시와 제주시민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미완성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